

담배에 대해서.....

최근, 한국에서도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두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담배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옆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기 때문에 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돈도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피지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임신중에 담배를 피면 배속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피는 사람의 옆에 있을 때는, 간접흡연이 되 피는 사람보다 좀더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누렇게 되서 자연스럽게 웃을수도 없겠죠.

지금까지 말한대로 담배를 피는데 여러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세상에는 각인각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싫어하는 사람은 피어도 상관없습니다. 담배는 술이나 과자등과 같이 기호품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옆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싫어합니다. 특히 담배의 냄새가 싫습니다. 커피숍에 가도 이쪽 저쪽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도대체 왜 담배를 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피고 싶은 사람은 흡연지역에서 피워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다이어트를 위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담배와 다이어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